

■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호남인맥 대해부

# 김광두 교수 '경제 과외교사', 이정현 공보단장 '측근중 측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주변엔 호남 인사들이 많이 포진해 있다. 이들은 대부분 선거 캠프의 일원으로 이번 대선 최전선에서 뛰었고 차기 정부에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박 당선인이 1987년 대통령 직선제 부활 이후 보수 정당의 대선 후보로선 처음으로 호남에서 10.5%의 득표율을 기록한 점도 호남 인물 등용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전문가 그룹=우선 박 당선인의 주요 공약을 만든 전문가 그룹에서 호남 인사들은 두드러진 활약을 했다. 그 가장 선두에는 박 당선인의 경제민주화 구상을 이끌었던 김중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이 있다. 그는 출신지가 서울이지만 초대 대법원장을 지낸 조부 고 김병로 선생이 전북 순창 출신이다 보니 호남 인맥으로 분류된다.

선대위 행복추진위의 힘찬경제추진단장을 맡았던 김광두 서강대 명예교수는 나주 출신이다. 박 당선인의 '경제 과외교사'로 불리며 박 당선자의 후보 시절 싱크탱크로 알려진 국가미래연구원을 이끌어왔다.

선대위 국민행복추진위원회 국방안보추진단장을 맡았던 김장수 전 국방장관은 노무현 정부 마지막 국방장관이었다.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때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고개를 숙이지 않아 '꽃장수'로 이름을 날리기도 했으며 언론에서는 벌써 국정원장 후보로 거론하고 있다.

또 창조경제 공약 작성에 참여한 연세대 윤종록 교수는 강진 출신으로 광주고를 나왔다. 한국지능정보산업협회 회장과 KT 신성장사업부문장 부사장을 맡은 이공계 전문가로 차기 정부에서 중용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기대된다.

박 당선인의 교육공약을 만든 주역인 김재춘 영남대 교수는 광주 출신이다. 기아차 아시아태평양 본부장을 지낸 고영석 박근혜후보 특별대책 특보는 담양 출신이다.

◇국회의원=원내에서는 영광이 고향인 이성현 의원이 호남 출신 의원 중 가장 막중한 역할을 했다는 평을 받는다. 이 의원은 지난 2007년 경선 당시 박근혜 캠프 조직총괄본부장을 맡아 활동했고 이번 대선에서는 국민소통본부장을 맡아 외곽지원 조직인 30만명 규모의 국민희망포럼을 이끌었다. 그는 지난해 말 박 당선인이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을 당시 비서실장을 지내기도 했다.

선대위 행복추진위 부위원장을 맡았던 진영 정책위의장은 전북 고창이 고향이다. 판사 출신으로 서울 3선 의원인 그는 대선 기간 내내 정책사령탑 역할을 했다. 인 수위 부위원장에 임명됐다.

광주가 고향인 심재철 의원은 원래는 친이(친이명박)계 인사였지만 이번 대선에서는 선대위 부위원장으로 야권과의 정치 공방의 선봉에 섰다.

19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국회에 진출한 호남 출신 의원들도 전국을 누비며 득표활동을 벌였다. 화순 출신으로 한국지정경제인협회장을 역임한 김정록, 신안 출신

으로 목포상공회의소 회장 경력에 있는 주영순, 전북 부안 출신으로 전 대한간호협회장인 신경림 의원 등이 바로 그들이다.

◇공보단·대변인=곡성 출신으로 선대위 공보단장이었던 이정현 전 의원은 호남 인사뿐 아니라 전국을 다 해서도 박 당선인의 최측근으로 분류된다. 박 당선인의 마음을 꿰뚫고 있어 '박근혜의 입'으로 통한다. 18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여의도에 입성해 지역 예산 지킴이를 자처했으며 지난해 4월 19대 총선에서 광주에 출마했지만 실패했다. 하지만, 그가 올린 40%에 가까운 득표율은 이번 대선에서 새누리당도 '호남에서 할 수 있다'는 가능성과 믿음을 심어준 토대가 됐다.

이 외에도 박 당선인 캠프 대변인실은 편중돼 있다는 평을 받을 정도로 호남 인사들이 많았다. 대변인으로 활약했던 중앙일보 출신의 이상일(함평) 의원, KBS 출신

수석부위원장(전북 전주)과 김경재 국민대통합위원회 기획담당특보(순천) 등의 노력이 있었다. 둘은 인수위 산하 국민대통합위 위원장과 수석부위원장에 각각 임명됐다.

전국호남향우회총연합회 중앙회 총재를 맡아온 임향순 전 한국세무사회장도 이번 대선에서 중앙선대위 100%대한민국대통합위원회 지역통합본부 총괄본부장으로 활동하며 대선 승리에 기여했다는 평을 받았다.

또 비록 캠프에 몸을 담그지는 않았지만 신안 출신인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와 전북 출신인 강현욱 전 전북도지사, 이무영 전 경찰청장 등의 지지선언도 호남 출향인사들의 표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득표율 10% 돌파의 공신들=광주시민단체총연합회 김규옥 상임공동대표는 국민대통합위원으로 활약했

## 김장수 前국방, 윤종록·김재춘 교수 임각 가능성 국회의원 이성현·진 영·심재철·주영순 등 포진 이상일·안형환·박선규 박캠프 대변인 맹활약 한광옥·김경재·임향순·한화갑 대선승리 기여

의 안형환(목포) 전 의원, 같은 KBS 출신의 박선규(전북 익산) 전 청와대 대변인은 모두 호남 출신이다. 또 지역연론 대책을 총괄했던 장영호 공보단 지역연론 팀장은 영광 출신이며 기자들의 취재활동을 지원하는 대변인 행정실의 김대정 차장도 함평이 고향이다. 박 대변인은 인수위에서도 대변인으로 활동하게 됐다.

◇보좌진·당직자=박 당선인의 메시지 실무를 총괄해 온 조인근 선대위 메시지실 부실장은 영암 출신이다. 박 당선인이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을 당시 여의도연구소 기획조정실장에서 비서실 부실장으로 부를 정도로 박 당선인의 신망이 두터웠다. 그는 지난 2007년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도 '박근혜 캠프' 정책메시지 총괄본부장으로 메시지와 연설문 작성을 담당했었다.

박 당선인의 비서실 멤버였던 이운룡 보좌역(전북 무주)은 박 당선인의 비례대표 의원직을 승계했으며 광주 출신으로 이성현 의원의 보좌관이기도 한 이경선 선대위 국민소통본부 시민행복연대 부본부장도 이번 대선의 최일선에서 활약했다. 선대위 지능총괄본부에서 활약했던 강원원 특별종교본부 부본부장은 곡성 출신으로 이 공보단장과 고향 친구사이다.

◇기타=박 당선인의 인맥으로 분류하기는 힘들지만 박 당선인의 대선 승리 뒤에 한광옥 국민대통합위원

이며 주영순 의원은 전남도당위원장으로서 지역을 누볐다. 농림부차관을 지낸 정승 광주시선대위원장과 유수택 광주시당위원장도 몸을 사리지 않았다.

또 이정현 공보단장의 전직 보좌관인 조준성 새누리당 광주시당 사무처장, 김영식 국민소통본부 광주·전남 총괄단장, 서연범 국민소통본부 광주·전남 정책특보, 서상기 국민소통본부 광주청년봉사단장 등이 지역에서 활약했다.



김 중 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



김 광 두  
<서강대 명예교수>



이 정 현  
<선대위 공보단장>



이 상 일  
<박캠프 대변인>



박 선 규  
<인수위 대변인>



안 형 환  
<박캠프 대변인>



심 재 철  
<선대위 부위원장>



이 성 현  
<국민소통본부장>



진 영  
<인수위 부위원장>



한 광 옥  
<인수위국민대통합위 위원장>



김 경 재  
<인수위 국민대통합위 수석부위원장>



김 정 록  
<지체장애인협회장>



김 장 수  
<국방안보추진단장>



주 영 순  
<전남도당위원장>



# 힘찬사람들이 즐거운 도전을 시작합니다!

✓ 국민의 건강을 위한 즐거운 도전이 시작됩니다  
전국 12개 인삼농협 네트워크를 통해 인삼 씨앗을 심는 것부터 거두는 것까지 꼼꼼하게 관리하겠습니다

✓ 2위 기업의 즐거운 도전을 응원해주세요  
대한민국 홍삼기업 중 매출규모는 2위이지만 뛰어난 품질과 신뢰로 고객의 마음 속 1위가 되었습니다

✓ '같이의 가치'를 위한 즐거운 도전은 계속됩니다  
국산 홍삼, 국산 한약재를 사용하여 우리 농촌의 힘이 되겠습니다  
5천만 대한민국 국민의 즐거운 도전을 응원하겠습니다

